

# 華北朝鮮獨立同盟의 敵區 據點建立運動

廉仁鎬\*

- |                          |             |
|--------------------------|-------------|
| I. 머리말                   | 2. 敵區工作     |
| II. 政勢變化와 敵區 據點建立運動의 本格化 | IV. 華北 農村地域 |
| 1. 八路軍의 反攻               | 1. 조선인 상황   |
| 2. 敵區工作班의 結成             | 2. 敵區工作     |
| 3. 敵區工作方針의 決定            | V. 滿洲 및 朝鮮  |
| III. 華北 都市地域             | 1. 滿洲       |
| 1. 조선인 상황                | 2. 朝鮮       |
|                          | VI. 맺음말     |

## I. 머리말

華北朝鮮獨立同盟은 1942년 7월 八路軍 총사령부 소재지 晉冀魯豫邊區에서 설립되었다. 獨立同盟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중공 八路軍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여 해방당시 수천여명의 인원을 포괄한,<sup>1)</sup> 가장 역량있는 민족운동 단체로 발전하였다. 獨立同盟과 그 무장부대인 朝鮮義勇軍은 해방후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와 조선신민당을 결성하고 이후 북한 정권 수립의 양대축의 하나가 되었다. 나머지는 滿洲에서 확대발전해 중국내전에 참여, 이름을 크게 떨쳤다.

獨立同盟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연구<sup>2)</sup>는 상대적으로

\* 서울市立大學校 講師.

1) 金弘壹은 해방당시 조선의용군의 대원이 2,000여 명 이라고 하였다. 조선의용군의 군인들이 곧 독립동맹의 맹원이 되었기 때문에 맹원의 수 역시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金弘壹, 《大陸의 憤怒》, 文潮社, 1972, p.353). 한편 崔昌益은 44년말에 이미 독립동맹은 10개 분맹에 수천여 명의 맹원을 포괄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崔昌益, '延安時代의 獨立同盟' <獨立新報> 1946년 5월 24일자).

2) 독립동맹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아래 글이 있다.

Lee Chong-Sik, "The Korean Communists and Yanan"(The China Quarterly, Jan-March, 1962; 박계운 역, <한인공산주의자와 연안> 《史叢》 8, 고려사학회, 1988 수록).

森川展昭, <朝鮮獨立同盟의 成立と活動> (《朝鮮民族運動史研究》 1, 1984).

鋒木昌之, <忘れた共産主義者たち華北朝鮮獨立同盟を中心に> (《法學研究》 57권 4호, 慶應大學 法

소홀히 되어 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獨立同盟 朝鮮義勇軍의 활동을 담은 일차적인 기록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945년 5월 武亭이 작성하여 八路軍총사령 등에게 제출한 보고 문건<sup>3)</sup>이 근년에 공개된 사실은 獨立同盟 義勇軍 연구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전해온 獨立同盟 義勇軍 참여자들의 회고와 비교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문건은 일제 패망직전의 獨立同盟 義勇軍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자료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이 자료는 獨立同盟 자료의 일부인 만큼 추가로 공개되면 연구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필자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국민당측의 문서, 解放日報, 晉察冀日報 등 중국공산당측의 신문 등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을 구성한다. 다루는 대상은 일제말기 獨立同盟의 敵區工作으로 한정한다.

## II. 政勢變化와 敵區 據點建立運動의 本格化

### 1. 八路軍의 反攻

獨立同盟 義勇軍의 활동은 중공의 八路軍의 활동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八路軍은 1940년 하반기에 화북지방에서 일본군을 총공격한 ‘百團大戰’을 전개하여 그 명성은 높였으나 반면 일본군의 경계심을 크게 자극하여 이후 일본군의 적극적인 공세에 시달려야 하였다.<sup>4)</sup> 특히 매년 봄 일본군은 八路軍 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八路軍의 활동을 크게 제약시켰다. 일본군의 대소탕전 때문에 朝鮮義勇軍 獨立

學研究會, 1984).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組織과 活動〉(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8).

李鐵環, 〈朝鮮獨立同盟과 朝鮮義勇軍〉(《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탐구당, 1992).

趙東杰, 〈朝鮮義勇軍과 그 遺蹟〉(《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93).

張世胤, 〈解放日報에 보도된 華北朝鮮獨立同盟의 活動〉(《五松李公範教授停年退任紀念 東洋史論叢》, 1993년 9월).

廉仁鎬, 〈華北朝鮮獨立同盟과 統一戰線運動〉(《쟁점 한국近現代史》 4, 1994).

3) 武亭, 〈華北朝鮮獨立同盟一九四四年一月至九四五年五月工作經過報告(一九四五年五月九日)〉. 이 문건은 楊昭全 等編, 《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 下 (遼寧民族出版社, 1987)에 수록되어 있다.

4) 穴戶寬, 〈抗日戰爭時期の八路軍, 新四軍〉(穴戶寬 外, 《中國八路軍, 新四軍史》, 東京: 河出書房新社, 1988). 이하 《八路軍史》로 약칭한다.

同盟 또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으며 팔로군측으로부터 가급적 전투를 회피하고 역량 보존에 힘쓸 것을 권유받아 활동은 제약받지 않을 수 없었다.<sup>5)</sup>

그러나 1943년 말부터 일본군의 공격은 점차 둔화되었다. 1943년에 들어와 태평양전쟁에서 수세로 물리기 시작한 일본군은 그해 말부터 중국에 주둔한 정예 부대를 점차 태평양 방면으로 차출하였다. 대신 나이 많은 군인과 낡은 장비가 보충되었다.<sup>6)</sup> 특히 태평양 방면에서 制海權과 制空權을 상실한 일본군은 남방과의 물자 수송난을 타개하기 위해 1944년 봄부터 ‘大陸打通作戰’을 실시하였다. 平漢線(北平—漢口)·奧漢線(廣州—漢口)·湘桂線(長沙—桂林) 확보를 위한 이 대작전에 일제는 22개의 사단을 동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華北·華中의 정예부대는 대부분 이곳에 투입되었고 華北의 八路軍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소부대들은 주요 거점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본군의 점령지역은 그만큼 축소되었다.<sup>7)</sup>

반면 팔로군의 군사력은 점차 증강되어 1944년 무렵에는 정규군 47만, 民兵 200만에 달하였다.<sup>8)</sup> 이제 수비와 공격의 입장도 역전되었다. 1944년에 들어와 팔로군은, 이제 적은 피로하고 우리는 공격한다는 ‘敵疲我打’의 단계라고 판단하고 공세를 취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八路軍의 근거지와 유격구역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일본군과 八路軍간의 군사적 정세의 변화는 朝鮮義勇軍 獨立同盟의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 2. 敵區工作班의 結成

八路軍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獨立同盟 義勇軍의 적구공작은 점차 활기를 띠었다. 八路軍의 작전지역이 넓어지면서 華北 거주 조선인들이 점차 八路軍 활동범위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八路軍은 朝鮮義勇軍 獨立同盟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패색이 짙어갈수록 華北·滿洲 그리고 조선국내에서 조선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갔기 때

5) 민족혁명당 당원 조선의용군 대원의 경력을 가진 이화립의 증언에 의하면 1942년 5월의 반소탕전 후 팔로군 사령부는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용군 전사들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고 조선의용군의 주요한 임무는 군사훈련과 정치문화학습을 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이화립, <진리의 향도따라>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연변인민출판사, 1987, p.241). 이하 《광활》로 표기.

6) 《八路軍史》 p. 169.

7) 위와 같음.

8) 위의 책 p.170.

9) 위의 책 p.177.

문에 조선인을 동원하여 적후방의 조선인 사회를 교란시키는 것은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유리한 정세를 맞이하여 獨立同盟 義勇軍은 1944년에 들어와 적구공작에 적극 나섰다. 獨立同盟은 1942년 7월 창립 당시 산하에 武亭을 책임자로 하는 적점령구공작위원회<sup>10)</sup>를 두었고, 적구 대조선인 공작을 적극적으로 실천키로 하였으나<sup>11)</sup> 1943년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43년도 독립동맹의 실천 계획을 담은 〈朝鮮獨立同盟 朝鮮義勇軍 一九四三年 工作方針(提綱)〉에서는 ‘조직공작’, ‘선전공작’ 과 아울러 ‘적점령구공작’부문 항을 넣고 공작의 원칙과 공작을 담당할 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하는 것을 밝혀 놓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조직공작이나 선전공작의 항에는 원칙(혹은 방침)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적점령구공작’항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이 항의 첫 대목에는 “반드시 주관 및 객관적 조건에 근거하여 獨立的 部門을 건립해서 이를 진행한다”<sup>13)</sup>고 함으로써 적구공작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 독립동맹은 창립초부터 1943년 말까지 주로 동맹내부의 통일 단결에 주력하였다. 동맹 창립초 동맹내부는 민족혁명당계열, 중국공산당계열, 전위동맹계열, 소련계열 등등 매우 다양하였고 지향하는 바도 그들간에 차이가 있었다. 독립동맹 의용군은 특히 1943년 한 해동안 整風運動을 대열내에서 전개하여 사상을 일원화하는데 주력하였다.<sup>14)</sup> 요컨대 1943년에도 적구공작은 계획되고 추진되었겠지만 주변정세와 내부의 역량상 주로 팔로군 근거지부근의 좁은 범위내에서, 본격적인 거점(分盟) 건립보다는 선전활동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1944년 2월 2일 獨立同盟 총부가 연안으로 이동되었다<sup>15)</sup> 이때부터 적후공작은 八路軍 野戰政治部(野政)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sup>16)</sup> 太行山에 남은 武亭 등은 5명의 간

10) 獨立同盟의 창립당시 중앙상무위원은 崔昌益, 武亭, 李維民, 金昌滿, 朴孝三, 金學武 등 5명이었다. 이 중 崔昌益은 書記部長이었고, 李維民은 担織部長, 朴孝三은 軍事部長, 武亭은 淪陷區工作委員會 책임자, 金昌滿은 經濟委員會 책임자였고 金學武는 宣傳部長職을 맡았다(한홍구, 앞의 논문 p.17,28).

11) 〈解放日報〉 1942년 9월 3일자.

12)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동맹내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주임 1인, 간사 2인을 임명하고 그 밑에 각종 형식의 공작조직을 둔다”고 하였다(楊昭全, 앞의 책 p.1128).

13) 위의 책 p.1128.

14) 독립동맹 의용군내에 전개된 정풍운동에 대해서는 廉仁鎬, 앞의 논문 pp.144~150 참조.

15) 楊昭全, 앞의 책 p.1129. 이때 군정학교 학생들과 義勇軍의 본대도 華北지대장 박효삼의 인솔하에 연안으로 출발하였다(〈解放日報〉 45년 2월 21일자 ; 이화립, 앞의 글, 《광활》 p.246).

16) 楊昭全, 앞의 책 p.1129.

부 및 7명의 공작인원으로 '敵區工作班'을 조직하였다. 이 班은 독립동맹이 적구공작을 위해 처음으로 만든 조직으로 보인다. 이 반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적구공작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그만큼 성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정 등은 먼저 조직·선전·경리 3부문을 설치하고 각각 李維民, 金昌滿, 洪林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sup>17)</sup> 李維民은 독립동맹 결성 당시부터 獨立同盟 조직부장이었다. 그러나 金昌滿은 1943년 전사한 金學武의 선전부장직을 이 무렵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sup>18)</sup> 홍림은 김창만의 경제 부장(경리부장)직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독립동맹의 중앙조직 중 서기부(부장 최 창익) 군사부(부장 박효삼)는 연안으로 이동하고, 태항산에 남은 조직부·선전부·경제부가 적구공작위원회 책임자 무정의 지휘하에 적구공작반을 결성한 것이었다. 적구공작반이 중앙조직인 조직부·선전부·경제부를 아우른 데서 우리는 이 공작반의 위상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정 등은 조직부 산하에 組織, 敵區, 通信聯絡 등 3개 課를 두고 金英淑을 조직과장에, 高逢基를 敵區 및 通信課長에 임명하고, 선전부에 宣傳課·材料課를 두고 楊界를 선전과장에 朴茂를 재료과장에 임명하였다. 경리부장 홍림은 생산 및 공급 임무를 맡았다.<sup>19)</sup>

武亭 등은 본격적으로 공작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간부 및 공작인원들에게 훈련 학습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들은 매일 정풍문건 22개를 중심으로 학습하였는데 이에 곁들여 각자 자신들의 사상과 사업작풍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였다.<sup>20)</sup> 太行山의 공작조직이 어느정도 정비되면 1944년 3월 12일 이들 공작인원을 冀魯豫·晉察冀·太行 3개지구로 나누어 파견하여 당지 분맹의 조직공작을 점검 지원하고 그곳에서 적후 공작인원을 배양토록 하였다.<sup>21)</sup>

적구 공작은 적구 조선인의 포섭, 포섭된 인원의 전문적 공작인원으로서의 육성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포섭된 인원의 육성 과정은 다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포섭된 사람을 공작지 조선인 사회의 일반적 상황을 조사해오게 하거나, 자신의 친구 동창을 조직하는(이때는 친목도모 등 가벼운 조직으로 보임) 등 간단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 2단계로는 정보수집, 선전재료 배포같은 임무를 준다. 이때는 공작비를 최소한도로 지급하여 가혹한 생활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2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다음단계로 사상,

17) 위의 책 p.1130.

18) 김창만은 1944년 8월 당시 독립동맹 선전부장이었다(〈晉察冀日報〉 44년 8월 26일자).

19) 楊昭奎, 앞의 책 pp.1129~1130. 楊界는 1943년 8월 현재 독립동맹 晉東南 分盟의 맹원이었다.

20) 楊昭奎, 위의 책 p.1130.

21) 위와 같음.

생활 작풍상의 장단점들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고 투입될 공작지구의 상황과 실제 업무를 교육하였다.<sup>22)</sup> 적후공작인원 육성은 순조로워 1944년 6월경에는 40여명에 이르렀다. 武亭 등은 이들 중 일부만을 남기고 안전한 연안으로 이들을 보내어<sup>23)</sup> 더 높은 차원의 학습을 받게 하였다. 이같은 적후공작인원의 배양 자체가 적구공작의 일환이었음은 물론이다.

### 3. 敵區工作 方針의 決定

주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자 獨立同盟은 방침을 결정하였다. 武亭의 보고에 의하면 동맹은 1944년 6월 초 각 지구의 공작상황을 연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적구 조직 공작(거점 건립공작) 방침을 전 동맹에 제출하였다. 이때 제출한 주체는 武亭이 지도하는 太行山 공작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① 거점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외에 在華北 기타 도시에 근거지를 건립한다.
- ② 天津 北平지구의 조선인 광부, 水理勞動者, 敵人農場의 농민을 힘써 징취한다.
- ③ 조선국내의 혁명조직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연계 건립에 노력한다.
- ④ 적구의 적인이 만든 각종학교의 조선인학생을 조직 및 동원하고, 학생대표회의를 열어, 일본파시스트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나아가 우리 同盟 義勇軍 및 八路軍의 영향을 확대한다.
- ⑤ 조선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국내인민을 조직하고 우리동맹의 분맹조직을 건립한다.
- ⑥ 滿洲의 조선인 거주지구에 분맹을 건립하고 농민가운데의 조직 건립 발전에 중점을 둔다.<sup>24)</sup>

이 방침에서 우리는 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적구공작의 범위를 기존의 근거지 근처 화북의 몇몇 도시에서 기동의 농촌·광산·수리공사장, 나아가 만주와 국내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대한 공작은 최초로 계획하였다. 둘째, 공작의 목적이 적구내 분맹 및 근거지 건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첩보 활동과 달리 동맹의 세력을 민중가운데 광범위하게 뿌리 박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대회를 조직한다는 것이다. 독립동맹은 지역별 분맹조

---

22) 위의 책 pp.1131~1132.

23) 위의 책 p.1132.

24) 위와 같음.

직 결성과 아울러 계층별 조직화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공작은 독립동맹 총부가 모두 맡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각 근거지의 분맹이 나누어 맡았다. ①항의 도시지역 공작은 太行分盟·太岳分盟·冀魯豫分盟·晋察冀分盟이 맡도록 되어 있었고<sup>25)</sup> ②항의 임무는 주로 晋察冀分盟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sup>26)</sup> 나머지 ③④⑤⑥항은 太行山 工作班이 직접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獨立同盟은 팔로군의 反攻이 시작되는 1944년에 들어와서 적점령구에서의 조직 건립공작을 준비하여 1944년 6월에는 그 방침을 결정하고 실천에 나섰던 것이다.

### Ⅲ. 華北 都市地域

#### 1. 조선인 상황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華北을 점령하면서 조선인 이주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일본군이 도시와, 그리고 도시 사이를 잇는 철도연변을 중점적으로 장악하였던 만큼 조선인도 자연히 도시에 집중되었다. 일제 패망당시 華北 여러 도시에서의 조선인 거주자 수는 아래와 같다.

北平 天津일대 : 10만  
石家莊 3만  
新鄉 8천  
泰原 5천  
靑島 1만  
濟南 1만<sup>27)</sup>  
唐山 2천<sup>28)</sup>

이들 도시거주 조선인은 학생·노동자층도 적지 않았으나 일본의 각급 관청에 근무하는 하급관리, 아편 제조 및 판매상인, 전쟁과 혼란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투기상인, 무직

---

25) 위의 책 p.1133.

26) 위와 같음.

27) 秋憲樹, 《資料韓國獨立運動》 1 (연세대학 출판부, 1971) p.193.

28) 楊昭全, 앞의 책 p.1145.

자·매춘녀·밀정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주로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또 일본군을 따라 들어온 까닭에 중국인들로부터 매우 혐오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력은 약해졌고 대세를 판단한 조선인 유력자들은 전쟁 말기 하나 둘 조선으로 미리 돌아갔다.<sup>29)</sup>

## 2. 敵 區 工 作

화북의 도시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적구공작이 비교적 쉬운 곳으로 일찍부터 공작이 추진되었고, 독립동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도 이 시기 지하공작원을 파견하여 조직화를 서두르고 있었다.<sup>30)</sup>

이 지역에 대한 적구거점전립공작은 太行分盟이 맡았다. 1944년 9월에는 太行분맹의 지도하에 北平의 獨立同盟小組는 北平分盟으로 개편되었다. 이 분맹은 발전하여 1945년 5월 당시 아래 4개의 소조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는 55명의 맹원이 있었다. 제2조는 30명으로 맹원, 그들은 모두 대학 및 중학의 학생이었다. 제3조는 12명의 맹원이 있는데 그들은 일제의 각종 기관에서 복무하던 사람이었고, 제4조는 7명의 맹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무직자들이었다. 이들 소조의 주위에 300여 명의 ‘진보군중’이 분맹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동맹의 비밀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 중 청년학생이 다수를 점하며 그 나머지는 각 방면의 문화인이었다.<sup>31)</sup>

여기서 北平分盟이 계층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의 각 기관 복무자 그룹이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이것은 일제의 보호장치가 점차 위력을 잃어가는 현상과 크게 관계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獨立同盟의 적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작정책의 교묘함 때문에 가능하였다. 獨立同盟의 적구공작을 지도하였던 八路軍은 적기관 종사자의 즉각적인 배반은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고, 심지어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八路軍측의 문서나 무기까지 일제에 바쳐서라도 신임받도록 하고 있다. 단지 팔로군이 총반격을 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팔로군편에 가담하라는 것이었다.<sup>32)</sup>

29) 秋憲樹, 앞의 책 p.467. 이 자료는 북평의 조선인에 대한 분석이지만 여타 도시에도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무정도 唐山市의 조선인 경우 대부분이 투기적 상인이거나 아편상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楊昭全, 앞의 책 p.1145).

30) 秋憲樹, 위의 책 p.467.

31) 楊昭全, 앞의 책 p.1133. 국민당측 문서에도 이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패망전 중공에 투신하여 북평시내에서 잠복하며 지하운동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 다수는 일본이 실행한 징병제도에 쫓겨 온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秋憲樹, 앞의 책 p.467).

32) 《八路軍史》p.182.



武亭은 北平분맹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獨立同盟 출신자 회고에 의하면 김명시였다.<sup>33)</sup> 김명시는 화요파 사회주의자로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신병으로 중퇴하였다. 이후 1927년 9월 말 상해로 와 홍남표의 보증으로 중국공산청년단 상해 조선인지부에 가입하여 조직부 겸 선전부책 및 지부책으로 활동하였다.<sup>34)</sup>

天津의 경우 1945년 1월에 7명의 성원으로 분맹을 결성하였다. 성원 다수는 조선국내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던 진보분자이며 모두 위장성 상업을 경영하고 있었다.<sup>35)</sup> 武亭에 의하면 이 분맹의 주입은 일찍이 상해의 중공 한인지부의 당원이었다.<sup>36)</sup> 당시 獨立同盟에서 활동한 사람의 회고에 의하면 그 사람은 安秉珍이었다.<sup>37)</sup> 이르크즈크파 사회주의자 안병찬의 동생인 안병진은 일찍이 형을 따라 상해에 가 조선공산청년회(고려공산청년회로 보인다—필자) 중앙간사로 사업하였다. 1924년에는 모스크바로 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3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27년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였다. 이후 체포되어 10년간 형을 산 후 중국 천진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北平·天津을 제외한 여타 도시에는 소조가 건립되었다. 1945년 4월에는 石家莊에서 12명으로 1개 소조가 건립되었는데 그 다수는 학생이었으며 기타는 점원과 노동자였다. 冀魯豫分盟에 의해 濟南과 龍海鐵道 연변 長權縣에 거점이 설립되었으며, 太岳分盟에 의해서는 1945년 3월 同蒲鐵道 연변 霍縣에 苦力노동자 5명으로 1개 거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唐山에서도 거점 설립이 추진되었다.<sup>38)</sup>

이같은 지하공작 과정에서 몇가지 피해사례도 있었다. ① 1944년 6월 開封 거점의 한 공작원의 부주의로 책임자 張立淸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거점은 파괴당하지 않았다. ② 晉察冀邊區에서 조선인 학생대표대회 (44. 8. 29)에 참가하고 靑島로 되돌아간 맹원 孫舟가 발각되어 1944년 10월에 靑島 일본영사관에 체포되었다. ③ 1945년 2월에는 太行分盟에서 順德에 파견되어 정보수집 및 물품구입을 담당하고 있던 맹원 崔河가 일제 헌병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자기 임무를 발설하여 체포되었다.<sup>39)</sup>

華北 도시 공작을 통한 성과의 하나로 먼저 晉察冀邊區에서 조선인 학생대회를 개최

33) 안화웅, <태항산으로 가는 길> (《연변문사자료집》 4,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편, 1985) p.167.

34) 李基夏, 《韓國共產主義運動史》(國土統一院, 1976) p.146.

35) 楊昭全, 앞의 책 p.1133.

36) 위와 같음.

37) 안화웅, 앞의 글 p.149.

38) 楊昭全, 앞의 책 p.1133.

39) 楊昭全, 위의 책 pp.1150~1151.

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晉察冀邊區에서는 1944년 8월 29일 ‘조선반일본파시스트 학생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sup>40)</sup> 이때 조선국내·일본·滿洲·華北 등 적점령지의 대학교·전문학교 및 중학교 대표들이 광범위하게 참석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21명이었는데 滿洲의 일본중학대표 2인, 보성전문학교대표 2인, 오산중학교대표 2인, 동경 명치대학 대표 5인, 일본불교대학 대표 1인, 함북 경성중학대표 1인 등은 이미 獨立同盟에 가입한 맹원이었다. 반면, 청도 일본중학 대표 3인, 北平 상업학교 대표 4인, 濟南중학대표 2인 등은 동맹의 화북 도시지역 적구 공작을 통해 동원된 사람들이었다.<sup>41)</sup>

이 대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학습자유쟁취 등 56건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또 조선반파시스트학생연합회를 결성하여 전조선인 학생을 단결시키고 항일투쟁으로 일으켜 세울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 결의를 중국의 毛澤東, 소련의 스탈린, 영국수상, 미국대통령 등 각국 원수와 세계반파시스트학생연합회, 八路軍 총사령 朱德 및 부사령 彭德懷에 打電하였다.<sup>42)</sup>

대회가 끝난후 5명의 대표는 邊區政府·八路軍·義勇軍·軍政學校를 선전하고 학생 대회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화북의 원래의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 대회개최는 중공 기관지 〈解放日報〉·〈晉察冀日報〉에 의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그 성과도 자못 커 이후 在華北 각 학교의 많은 조선 학생들이 일본징병에 반대하여 근거지로 와 독립동맹에 가담하였다. 또 北平의 허다한 조선거류민들은 의연금을 모금하여 2만원의 돈과 무기를 동맹이 운영하는 군정학교로 보내오기까지 하였다.<sup>43)</sup>

이처럼 華北도시지역에서 거점이 건립됨으로써 獨立同盟은 국내와의 연락망을 확보하게 되었다. 독립동맹과 국내 呂運亨조직의 접촉지점은 天津이었고 국내의 金史良은 북평의 독립동맹 거점을 통해서 연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sup>44)</sup>

40) 〈晉察冀日報〉 44년 8월 26일자, 9월 8일자. 한편 이보다 앞서 1944년 6월 조선인 학병 4명이 관로군 지구로 탈출해 오자 독립동맹은 이들을 환영하여 日軍 출신 맹원 40여 명이 같은 달 ‘前日軍朝鮮人士兵大會’를 太行 지구에서 개최하였다(楊昭全, 앞의 책 pp.1151~1152).

41) 위의 책 p.1148.

42) 〈晉察冀日報〉 44년 9월 8일자.

43) 楊昭全, 앞의 책 p.1148,1153.

44) 김사량은 1945년 5월 26일 화북조선독립동맹에 관계된 y대인(이영선)과 만나 29일 北平역 平漢線 플랫폼에서 남하 열차를 타고 30일 오전 順德역에 하차하였다. 그는 일본군 봉쇄선을 돌파하고 31일에 조선의용군 연락지점에 도착, 6월 9일 태항산 근거지에 도착하였다(이상경 편, 《노마만리》, 동광출판사, 1989. p.414).

## IV. 華北 農村地域

### 1. 조선인 상황

在華北 조선인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 거주하였지만 일부는 滿洲 바로 밑, 山海關 天津 철도 부근의 冀東(河北省 東部)지역 농촌에 살았다. 조선인들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이곳에 정착하였다. 일제 말기에 이 지방에는 아래같은 조선인 농장들이 散在하였다.

隱梨 동남 25 華里(=12.5km)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潮河農場은 조선인 지주 최상기가 1937년에 조성하였다. 경지는 1,000구畝 정도였으며 조선농민 8호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농민 다수는 최상기의 친척이고 다른 농장에 비교하여 각종 물자 배급이 비교적 나았고 지대는 4할을 바쳤다. 이 농장은 일제의 거점에서 30화리 떨어져 있었고 일제는 추수 계절을 제외하면 이 농장에 경찰이나 경비대를 파견 주재시키지 않았다.

1944년 이후에는 八路軍의 유격구내로 포함되었는데 당시 농장의 지주와 농민들은 일본 패망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sup>45)</sup>

또 昌黎 해변 灤河 하류에 위치한 昌黎農場은 조선인 李某 등 3인이 1938년 합자하여 창설하고 1941년에 조선인 지주 신영철이 인수한 농장이었다. 면적은 1,500정보이고 그 중 174정보는 신개간지였다. 연간 생산량은 3,500석이었다. 여기에 조선농민 35호, 150명이 살고 있었다. 농장관리 직원은 7명이었다. 일제는 경찰대·경비대 혹은 군대를 농장에 파견하지 않고 단지 두 사람의 특무를 농장 농민 신분으로 파견해 놓고 있었다. 이 농장도 1944년부터는 八路軍의 유격공작지역에 포함되었다. 공작 이전에는 농장의 지주는 일제와 결탁해 있었으나 공작이 시작되면서 일제와 八路軍 양측에 비위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일제는 이때부터 농민과 八路軍의 결합을 우려해 감독 감시를 강화하여 때로 농민을 헌병대와 경찰로 끌고가 구타하거나 고문하기도 하였다.<sup>46)</sup>

특히 1940년대에 들어오면 일제는 이 冀東지역에 정책적으로 농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농장이 蘆臺農場과 栢各庄農場이었다. 먼저 天津 동북방 寧河縣의 蘆臺農場의 경우를 보자. 이 농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조성하였다. 경지면적은 3,500정보였고 17개 마을에 조선농민 850여 호, 4,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45) 楊昭全, 앞의 책 pp.1138~1139.

46) 위의 책 p.1140.

중 150여 호는 1940년 조선의 경상남북도·전라남도에서 모집되어 온 이민들이며 나머지는 같은 시기 滿洲 및 華北 각지에서 강제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 농장의 식량 생산량은 연 36만석이었다.<sup>47)</sup> 농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중국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추방당해야 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선농민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다.

일제는 대규모 농촌협동조합을 만들어 이 농장을 관리하였다. 그들은 농장 협동조합내에 서무·농무·금융 등 3부를 두고 호구·재정·농업생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각 마을에는 구장 1명과 경찰 7명, 1개소대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 밖에 전농장에 약 1개 탄 병력의 왕조명 僞警察隊가 있었다.<sup>48)</sup>

중국 조선족 학자의 연구는 이곳 상황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이 농장의 회사는 집집마다 논을 샅으로 갈아주고 볍씨와 화학비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었으며 농민들에게 식량을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북평대사관에서 파견나온 수백명의 경관들이 부락마다에 10여 명씩 나누어 경비를 서면서 농민들이 피땀으로 거둔 벼를 한알도 남기지 않고 죄다 농장 회사에 바치게 한 후 그해의 농사를 결산하도록 감시하였다. 농민들에게 1940년부터 1942년까지는 전부 좁쌀을 식량으로 주다가 1943년부터는 인심을 얻기 위하여 입쌀을 공급하였고 때로 사탕·과자도 공급하였다. 일제는 농장중심인 중앙리에다 경찰서, 蘆臺일본국민학교, 상점, 병원과 농장관리회사 등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경찰서의 산하에 警農隊라는 무장조직을 결성하고, 중앙리와 동서남북 각 요지에 5개 또치카를 구축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외 일제는 경찰의 지휘를 받는 밀정을 부락마다 1,2명씩 박아넣었다. 그리고 부락마다 구장 1 명과 그 조역을 한 사람씩 두어 농장 회사를 도와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농장의 경찰서·회사·학교의 요직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sup>49)</sup>

武亭에 의하면 이전에 적지 않은 조선농민들이 유격구 변경에서 당지의 중국농민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로 말미암아 蘆臺農場 조선농민들이 八路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였다. 조선농민들은 八路軍이 조선인을 죽이지 않으며 오히려 조선 독립을 위해 열심히 돕고 있고, 邊區政府가 조선인을 우대한다는 팔로군의 선전에 대해 매우 의심스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sup>50)</sup>

다음으로 灤縣 栢各庄農場의 경우를 보자. 武亭의 보고에 의하면 이 농장은 일본의

47) 위의 책 p.1137.

48) 위와 같음.

49) 이동섭, <로태농장과 조선의용군> (《승리》), 임창배 주필, 조선족발자취총서 5, 북경: 민족출판사, 1992) pp.45~46.

50) 楊昭全, 앞의 책 p.1138.

‘華北懇業會社’가 1944년 5월 만들었고 농경지는 390만평이었다. 여기에는 11개의 작은 마을에 조선농민은 300여 호, 2,500여 명과 중국농민 300여 호가 살았다. 농장의 조선농민들은 일제가 天津 北平 영사관을 통해 1944년 5월부터 天津 北平 蘆臺 등지에서 무직의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데려온 것이다. 구태여 전직을 말하자면 대부분 소상인 및 자유 직업자였다.<sup>51)</sup>

일본 天津영사관은 여기에 영사 분관을 설치하고 경찰관 40명 경비대 30명을 두고 경기관총 5정, 소총 40정을 배치하였다. 특히 500여 명의 이곳 조선청년들로 ‘자위단’을 조직하고 훈련시켜 경비를 보조케 하였다. 또 조선 청년 12명을 훈련시켜 각 마을에 특무로 배치하여 농민을 감시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 일반 백성 및 민병들이 농장의 조선농민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살해하는 일이 약간 있었다.<sup>52)</sup>

그 밖에도 조선인 농장으로 西河南農場, 赤洋海口農場, 七里海農場 등등이 있었다.<sup>53)</sup>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중일전쟁 발발직후 조선인 농민이 진출하였던 이 지역에 일제는 1940년대 들어와 조선인을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여 대규모 농장을 개설하고 이 농장을 국방요새와 군량기지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제는 華北 滿洲에 떠돌아 다녔던 치안과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조선인들을 이곳에 수용하고 ‘산업전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군대식으로 편제하여 주변 八路軍의 공격을 막는 보루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식량을 중국 주둔 일본군의 군량으로 조달하였던 것이다.

둘째, 일제의 정책적인 농장의 설치로 땅을 잃고 쫓겨나야 하였던 중국농민들은 조선인농민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 때때로 팔로군 유격지역에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대로 이로 인해 조선인의 팔로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제의 이간정책에 의해 더욱 조장되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潮河農場·昌黎農場에서 볼 수 있듯이 八路軍의 유격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농민과 지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었다. 冀東 농촌지역의 조선인들은 생존을 위해 일제 정책에 순응하였지만 결코 일제에 충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獨立同盟이 활동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 2. 敵 區 工 作

---

51) 위의 책 p.1134.

52) 위와 같음.

53) 위의 책 p.1143.

이 지역에서의 공작은 獨立同盟 冀熱遼分盟이 결성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4)</sup> 이 분맹의 결성 시점은 1944년 9월쯤으로 보인다.<sup>55)</sup> 이 분맹의 결성식에 참석 하였던 전신규에 의하면 이날 동맹 본부에서 파견나온 李大成·朱然·陳國華 등과 제4전 원공서 전원 정진군, 농민대표인 백각장농장 이청해 그리고 서동휘·김윤배·전신규 등 신 대원 8~9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sup>56)</sup>

전신규에 의하면 대회에서는 동맹의 강령과 규약, 목전의 형세와 임무를 당지 실제 상황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내용은 대체로 일제가 설치 해 놓은 초소와 군량공급지에 박혀있는 특무 및 앞잡이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조선인들의 항일애국역량을 조직해 낸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분맹주임에 李支隊長, 부지 대장 겸 조직위원에 李大成, 정치주임에 朱然, 선전위원에 陳國華가 당선되었다고 한다.<sup>57)</sup>

冀熱遼分盟은 진찰기분맹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 기동지구의 실질적인 공작책임자는 晋察冀分盟의 주임 蔡國蕃이었다.<sup>58)</sup>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맹 晋察冀分盟으로 출발한 이 분맹은 동으로는 冀東 滿洲와 통하며 남으로는 八路軍 총부가 있는 晋冀魯豫邊區와 연결되고 서로는 晋西北邊區 연안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 일찍부터 적 후공작에 큰 공적을 쌓고 있었다.

따라서 진찰기분맹의 주임 蔡國蕃이 기동의 적구공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 채국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蔡國蕃은 조선 의용대가 팔로군 지역으로 들어 올 당시 八路軍 敵工部 소속이었다는 증언<sup>59)</sup>이 있는 점

54) 武亭의 보고문에는 이 冀熱遼分盟의 존재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解放日報> 45년 4월 28일자 에 ‘冀熱遼分盟’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기열료분맹은 분명히 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5) 이 분맹의 창립식에 참여하였던 전신규는 분맹이 1943년 9월 13일에 창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창립식은 백각장 농장 창설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백각장 농장은 앞서 본대 로 1944년 5월에 창설되었으므로 분맹의 창립은 그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중공의 晋察冀軍區 밑에 冀熱遼軍區가 설치되었던 시점이 1944년 7월 28일이므로 그 이전에 獨立同盟 冀熱遼分盟이 창립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八路軍史》 p.566). 전신규는 한해 앞당겨서 기억한 것이 아닌 가 한다.

56) 전신규, 앞의 글 p.322.

57) 위와 같음. 여기서 말하는 이지대장은 이익성을 지칭한다(김용삼·김환, <조선의용군 제5지대> 《승리》, pp.77~78).

58) 楊昭全, 앞의 책 p.1133. 한편 1944년 7월 28일 晋察冀軍區는 산하에 冀晋軍區·冀察軍區·冀熱遼軍區를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晋察冀軍區는 이들 2급 軍區들을 통할하게 되었다(《八路軍史》 p.566). 따라서 獨立同盟의 경우도 冀熱遼分盟이 晋察冀分盟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던 것이다.

59) 당평주, <조선전우들과 함께 싸우던 나날에> (《결전》, 김우중 주필,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 4, 1991) p.381.

으로 보아 일찍부터 팔로군에 가담하여 적구정치공작에 종사한 사람으로 보인다.<sup>60)</sup>

冀東지구에서 獨立同盟의 활동사례는 西河南農場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이 농장의 조선농민들은 獨立同盟과 義勇軍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義勇軍을 민폐가 심하였던 과거 滿洲의 독립군과 대비하기도 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1944년 8월 말 八路軍 敵工 幹事가 적에게 발견되었고 지방정부의 구장과 통신원이 살해되었다. 이때부터 일제는 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농민들은 심하게 동요하였다. 일제는 심지어 농민들을 성 안으로 이주할 것을 지시하였다.<sup>62)</sup>

潮河農場의 경우, 앞서 본대로 이곳 지주와 농민들은 일본패망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생명 재산을 보장해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곳의 지주는 처음에는 八路軍이나 獨立同盟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선전활동의 결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호도 침범치 않는다는 선전에 확신을 가졌다. 이들은 八路軍 정책이나 獨立同盟의 독립운동 추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농장주 최상기는 양면과 인물로서 일제측이 농장에 오면 그들에게 돈을 주어 호감을 사고 獨立同盟 공작원이 가도 역시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지주와 농민들은 점차 八路軍과 獨立同盟의 지도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중국 농민들처럼 邊區政府에 세금 바치기를 원하였다. 또 공작원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朝鮮義勇軍의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농장에서의 공작은 다른 농장에 비교해 가장 성과가 좋았다.<sup>63)</sup>

昌黎農場의 경우, 獨立同盟은 1944년 9월부터 친척·친구관계를 활용하여 공작을 개시하였다. 이곳 농민들은 곧 獨立同盟을 옹호하였다. 농민들은 항일근거지 정부에게 현물세를 바친 후 전체농민회의를 소집하고 “우리들은 八路軍이 아닌 義勇軍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싶다”는 결의를 獨立同盟 공작원에게 제출하였다. 獨立同盟은 “중국군대나 조선군대나 가리지 말라. 모두 항일 형제다”고 설득하였다. 또 농민들은 청년들의 義勇軍 가입을 적극 고려하기까지 하였다. 농장의 일제측 특무는 지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농민들과 獨立同盟 공작원이 합세하여 그를 고립시켜 도망가게 만들었다.<sup>64)</sup>

60) 채국번 (김호)는 해방직후 동북조선의용군 압록강지대 지대장을 맡았다(최해암, 《조선의용군 제1지대사》, 요녕민족출판사, 1992, p.23).

61) 무정에 의하면 1943년 7월 지방정권기관의 행정이 이 농장부근에 전개되자 독립동맹은 이와 배합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농장에 대한 공작이 1944년 이전인지는 불분명하다. 단지 무정의 문건에는 일반상황에 대해서는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하고 독립동맹의 활동상황만 보고하고 있다. 이는 편집자가 그러한 것인지 원문이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무정이 그러한 하였다면 이미 1944년 이전에 보고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62) 楊昭奎, 앞의 책 p.1143.

63) 위의 책 pp.1139~1140.

64) 위의 책 pp.1142~1143.

蘆臺農場의 경우, 이미 본대로 일제는 이 농장 조선농민을 八路軍과 독립동맹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또 과거 유격구에서 조선농민들이 중국인들에게 피살당한 경험들은 八路軍·獨立同盟의 선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이곳 농민들은 생활도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어 보수적 분위기가 강하였다.<sup>65)</sup> 獨立同盟은 1944년 9월 이 농장에 1명의 맹원을 파견하여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공작을 개시하였다. 이 공작원은 동맹 소조 1개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1944년 10월 공작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八路軍 근거지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구장 한사람으로부터 길에서 피살당하였다. 동맹은 1945년 3월에 다시 두명의 공작원을 파견하여 동맹 조직을 재건하였다. 1945년 5월 무렵 여기에 5명의 새로운 성원이 들어와 있었다.<sup>66)</sup>

栢各庄農場의 경우, 獨立同盟은 이 농장에서 1944년 9월부터 공작을 개시하였다. 獨立同盟은 농장 부근 유격구 중국인들도 공작대상으로 삼았다. 獨立同盟은 먼저 八路軍 지방정부와의 협조아래 유격구의 군중대회 때를 이용하거나 좌담회 혹은 유격구의 중국인 농민·지식분자 회의를 열어 조선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조선인이 중국에서 전개하는 항일투쟁의 상황 및 중·조 양민족을 이간하기 위한 일제의 책략 등을 이해시켰다. 아울러 중국인이 농장의 조선인을 살해·핍박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였다.<sup>67)</sup>

독립동맹은 또 농장 조선인들을 설득하였다. 맹원들은 비밀리에 농장 농민의 친척·친구·동창 등 사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혹은 농장 농민이 八路軍 근거지 부근의 시장에 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朝鮮義勇軍과 獨立同盟의 상황, 八路軍은 조선인들을 살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독립을 돕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같은 공작이 주효하여 조선농민들 가운데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우호적인 농민들은 1945년 5월 시점에서는 농장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동맹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상의하기까지 하였다.<sup>68)</sup>

이 외에도 獨立同盟은 赤洋海口農場, 七里海農場 등의 농장 그리고 2,000여 명이 살고 있는 唐山 시내, 기업소, 광산, 수로공사장 등지에서 공작을 전개하였다.

이같이 공작이 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개편과 공작본부의 이동이 있었다. 이는 아래 武亭의 보고문에 나와 있다.

제 2항의 임무(天津 北平지구의 조선인 광부, 水理공사 노동자, 일제 농장의 농민 쟁

65) 전신규, 앞의 글(《광활》) pp.334~335.

66) 楊昭奎, 앞의 책 p.1138.

67) 위의 책 pp.1134~1137.

68) 위와 같음.



취 임무—인용자)는 晋察冀分盟의 책임아래 진행되었다. 이 분맹의 원주임은 채국번동지였다. 그는 軍區정치부 敵工部와 대립, 敵工部 영도를 따르지 않고, 동맹의 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중략)… 이로 인해 軍區정치부는 그를 연안으로 보냈다. 채국번이 떠난 후 軍區정치부의 동의 및 비준을 거쳐 지금 막 분맹을 冀東으로 이전하고, 동맹은 조직부의 李維民동지를 冀東에 파견하여 직접 冀東分盟공작을 관할케 하였다.<sup>69)</sup>

여기서 먼저 공작의 책임자가 蔡國蕃에서 李維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이 중공의 晋察冀 軍區 적후방공작부의 지침이나 獨立同盟 결의를 집행하지 않았다고만 하여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蔡國蕃이 연안으로 떠난 때는 1945년 5월 9일 직전 어느 시점으로 보인다.

또 晋察冀分盟을 冀東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晋察冀分盟은 그대로 두되 晋冀冀分盟의 冀東지구 공작 임무와 주요 역량이 冀東分盟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冀東分盟은 李維民이 파견되면서 결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冀東分盟의 전신은 기열료분맹이었다. 기열료분맹은 역량상 독립분맹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晋察冀 분맹의 지도를 받아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무정의 보고문에는 금주지방의 활동이 만주편에 넣어져 있었다. 열하 요녕지방의 공작이 일제의 滿洲 冀東차단정책으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사정에 따라 금주 등지의 활동을 滿洲의 분맹에 소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진찰기분맹이 지도하던 일을 冀東현지의 冀東分盟이 맡게 되고 독립동맹 조직부장이 이를 직접 맡았다는 사실은 冀東 농촌지역의 공작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冀東지역에서의 활동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八路軍의 활동이 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일제 패망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 대한 獨立同盟 義勇軍의 활동이 매우 힘차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1944년 9월 기열료분맹이 세워지는 시점부터는 蘆臺農場·栢各庄農場 등 일제의 정책농장에 역량을 본격 투입하였다.

둘째, 공작의 방법으로 기존의 친척·친구 등의 인간관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중공 八路軍이 일반적으로 활용하였던 방식이었다. 1944년 4월 당시 발간된 일제측의 자료에 의하면 중공은 왕정위 정권 가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편지를 하거나 그 친구관계·친척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교섭하였다고 한다.<sup>70)</sup>

69) 위의 책 p.1133.

70) 《八路軍史》p.182.

셋째, 독립동맹은 朝·中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獨立同盟은 조선농민들에게 八路軍과 獨立同盟의 정책을 선전하고 일제의 조중이간정책을 폭로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이곳 조선농민들의 처지를 이해시키며 獨立同盟 등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중국인민과 손잡고 싸우고 있는가를 인식시켜 그들의 반조선감정을 누그러뜨렸던 것이다.

넷째, 獨立同盟은 조선농민들에게 자신들을 조선인의 보호자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면서 많은 조선인 농민과 지주들은 장래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나 獨立同盟은 八路軍과 獨立同盟의 정책을 이해시킴으로써 이들을 안심시켰고 농민들은 점차 팔로군과 독립동맹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1944년 9월 이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조직공작의 결과 수개 농장에서 거점을 건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冀東分盟을 결성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朝鮮義勇軍 獨立同盟에 가입하는 자가 매우 많아 1944년 10월 중순에 이미 40여 명이 연안을 향해 출발했다.<sup>71)</sup>

## V. 滿洲 및 朝鮮

### 1. 滿洲

#### 1) 朝鮮人 狀況

일제말기 재만 조선인 수는 120만에서 300만까지 추정되고 있다.<sup>72)</sup> 합방 이전부터 많은 조선인이 살길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하였는데 특히 滿洲 사변으로 일제가 전지역을 장악하자 이주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북간도·서간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中東線철도, 南滿洲철도, 장춘—연길철도 연선의 도시와 농촌에 많이 살았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재만조선을 滿洲방위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그들은 새로이 이주한 재만조선인을 ‘開拓戰士’라고 부추기고 각처에 집단부락을 형성하여 이들을 배치하였다. 17세에서 20세까지는 재향군인이라 하여 1년에 한 두번 현성에 모아 놓고

71) 김응삼, <조선의용군의 네 꼬마> (《광활》) p.500.

72) 秋憲樹, 앞의 책 p.193,467.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21세부터 23세까지는 무조건 현역대상이 되었는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사람은 언제라도 호출되면 가야 하였다.<sup>73)</sup>

또 일제는 재만 조선인을 관동군의 군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만주의 중국인들은 이른 봄에 눈에 들어가 몸에 물을 적시면 배앓이를 하여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 반면 조선인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논을 만들고 벼농사를 보급하였다. 따라서 쌀을 소비하는 관동군의 군량은 이 조선농민들에게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다.

滿洲는 오랫동안 항일운동의 해외 거점구실을 해왔다. 1920년까지는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하였고 滿洲事變 발발이후 194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자들이 산야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극심한 토벌로 獨立同盟이 결성되는 1942년 이후에 표면적으로 활동은 사라졌지만, 항일운동의 잠재력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 2) 공작활동

滿洲지역에서의 공작활동은 1942년 李相朝가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재만 獨立同盟 맹원들의 회고록<sup>74)</sup>에 의하면 중공당과 獨立同盟의 신임을 받았던 이상조는 1942년 만주 파견 지하공작원을 양성하는 東幹班<sup>75)</sup>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그해 말 만주로 파견되었다.<sup>76)</sup> 그가 조선인이 모여사는 하얼빈 이북 파인현 서집가 동성구(촌)에 들어선 것은 1943년 3월 말경이었다. 이 동성구는 3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졌으며 200여 세대 중 180세대가 조선인이었다. 이곳은 주하 아성 연수 등지에서 토지와 가옥을 일본 개척단에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와서 36년 봄부터 황무지를 일구고 개척한 마을이며 보통 동성농장이라고 불렸다.<sup>77)</sup> 이들 가운데는 지난날 반일활동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의 반일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상조는 1943년 이곳에서 10여 명을 獨立同盟 맹원으로 포섭하고 같은 해 5월 5일 朝鮮獨立同盟 제 12지부를 결성하였다.<sup>78)</sup> 이상조는 1944년 10월까지 이곳에 거주하면서

73) 李海東, 《滿洲生活 七十七年——松선생 만머느리 李海東여사 手記 “亂中錄”》(명지출판사, 1990) pp.123~124.

74) 조경형·김명, 〈해방의 서광을 맞이하기 위하여〉(《조선의용군 3지대》, 리희일·서명훈 주편, 흑룡강민족출판사, 1987) pp.37~59.

75) 延安抗日軍政大學 幹部訓練隊 東北幹部訓練班(東幹班)의 학생들은 대부분 東北(滿洲) 또는 熱河 일대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동북공작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동북으로 파견되어 공작하게 되어 있었다(강창록·김영순·이근진·일천, 《주덕해》, 실천문학사, 1992, p.116).

76) 조경형·김명, 앞의 글 p.40.

77) 위의 글 pp.37~38.

78) 위의 글 p.42. 필자는 조선독립동맹 제 12지부에서 ‘제 12’라는 숫자에 주목하였다. 이는 관내 각지에서 결성되었던 10여 개 분맹에 이어 조직되어 붙여진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명칭은 적어도 1944년 6월 이후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상조의 동성농장의 조직은 비밀 지하소조로 있다가 1944년 6월 이후 독립동맹 중앙의 승인하에 이름 지

이 농장과 인근의 여러 조선인 지역을 대상으로 공작을 전개하였다. 1944년 10월에는 신분노출 위험을 피해 하얼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중공의 滿洲에 대한 진공정책이 1943년 말까지는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獨立同盟도 1943년도의 정풍운동과정에서 만주로 가야 잘 싸울 수 있다는 ‘東北路線’을 심하게 비판하였다<sup>79)</sup>는 점에서 볼 때 1943년 말까지 獨立同盟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조의 활동은 당분간 독립동맹 총부와 연계없이 고립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武亭이 이 지역에서의 직후공작은 1944년 9월부터 개시되었다고 한테서 보면<sup>80)</sup> 이때에 비로소 본격적인 적구 거점건립공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獨立同盟은 1944년 9월초에 鮮滿工作委員會를 건립하고 3명을 이 공작에 전담시켰다. 獨立同盟은 이때 안동·요녕·하얼빈·목단강·길림·훈춘·사평·통화 등을 중심지구로 설정하고 재만 조선농민 중에서 동맹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재만 공작은 아래같은 순서를 밟도록 짜여졌다.

- ① 먼저 遼寧(봉천일대—인용자)에서 하얼빈 一線의 局面을 打開하고, 동시에 錦州를 거쳐 冀東으로 들어오는 聯絡交通線을 건립한다.
- ② 그 다음으로 하얼빈에서 牧丹江 一線工作으로 발전시킨다.
- ③ 然後에 牧丹江 琿春一線의 공작에 착수한다.
- ④ 그 다음으로 四平에서 通化一線의 활동을 전개한다.
- ⑤ 동시에 遼寧에서 安東에 이르는 공작을 병행한다.<sup>81)</sup>

獨立同盟의 공작 순서를 다시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로 華北과 滿洲를 연결하여 華北에서 금주 하얼빈까지의 교통로상에 거점에 건립하는 것이었다. 獨立同盟은 분맹건립공작을 冀東에서 발전시키며 이를 발판으로 滿洲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취했던 것이다. 冀東 하얼빈선이 확보되면 둘째 단계로 북만에서 중동선을 따라 북간도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단계로 사평을 출발하여 통화 등 서간도로, 또 봉천을 출발하여 조선인 집거지 안동 일대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간선 지역의 거점 도시에서 조선인 집거지구 북간도·서간도로 향하였던 것이다. 서·북

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79) 廉仁鎬, 앞의 논문 pp.148~149. 한편 林隱, 《北韓金日成王朝秘史》(도서출판 한국양서, 1982) p.146에 의하면 東北路線에 대한 논쟁은 8·15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80) 楊昭全, 앞의 책 p.1149.

81) 위와 같음.

간도에 토대를 구축하고 압록강·두만강 넘어 조선국내로 진출한다는 것이 장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순서에 따르면 冀東과 滿洲를 연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武亭에 의하면 보고 당시 錦州에서 冀東으로 들어오는 一線에 1개 공작소가 지방공작대와 더불어 교통 연락선 건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교통선을 건립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팔로군의 유격대가 금주부근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일제가 그해 하반기부터 특허증을 가지지 않으면 遼寧에서 錦州로 갈 수 없도록 하고 증명서 없이 금주 산해관을 가는 자는 모두 의심하여 체포·심문토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sup>82)</sup> 무정이 보고할 당시 기동지방과 만주지역간의 교통선은 일제의 계속되는 차단정책때문에 건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얼빈 중동선철도와 남만철도 일대의 공작은 태항산의 공작반 지도하에 성과있게 추진되었다. 武亭이 받은 1944년 12월 27일자 보고에 의하면 동맹은 이미 하얼빈 부근 通河·木蘭·洞興·新甸·帶嶺 등지에서 크게 발전하여 800여 명의 사람들이 동맹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또 1945년 4월 23일자 보고에 의하면 2,000여 명의 조선청년들이 수용된 채하얼빈 '청년훈련소'에서 獨立同盟은 지하소조(人數 不詳)를 건설하였다. 또 遼寧農場·蘇家屯農場에 獨立同盟의 일개소조가 나뉘어 건립되어 있었다고 한다.<sup>83)</sup> 여기서 하얼빈과 그 인근 각지의 활동은 이상조가 지도하는 독립동맹 제 12지부의 활동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공작보고는 승덕의 비밀연락소를 통해 들어왔다.<sup>84)</sup> 비밀엄수를 위해 보고문자수가 제한되어<sup>85)</sup>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는 어렵다. 그 구체상은 獨立同盟 참여자들의 회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회고에 의하면 제 12지부의 맹원 조경형은 일본군의 동태와 조선인민의 생활형편 및 사상정형을 파악하라는 동맹 지부의 명을 받아 1944년 초 청진·함흥·홍남 일대를 돌아보고 귀환했으며 김명은 부산·대구·밀양 등지로 여행하고 돌아왔다.<sup>86)</sup>

동성농장의 지부(독립동맹 제 12지부)는 맹원들의 사상수준제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련에서 등사기와 등사기름을 가져와 <조선독립동맹강령>·<선언요점>·<조직원칙>·<쏘독전쟁과 국제정세> 등 문건 재료를 찍어냈고 또 모택동의 일부저작의 요지

82) 위의 책 p.1150.

83) 위와 같음.

84) 조경형·김명, 앞의 글 p.54. 한편 독립동맹 제 12지부는 1943년 겨울 김대원을 연안에 보내 12지부의 사정을 독립동맹총부에 보고케 하였다고 한다(같은 글 p.46).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1944년 12월 27일자 보고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85) 楊昭全, 앞의 책 p.1150.

86) 조경형 김명, 앞의 글 p.52.

등을 등사하며 맹원들과 다른 지역에 배포하였다. 동맹은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는데 특히 조선인·중국인간의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한다.<sup>87)</sup>

1944년 10월 이상조가 추적을 피해 농장을 떠나 하얼빈으로 가면 조경형이 지부를 책임지고 이끌었는데 그는 1945년 5월 15일 하얼빈 도리 공원에서 이상조를 만나 중국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의 기본정신과 독소전쟁상황 및 불원간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리라는 등의 국제 정세를 듣고 아울러 유격투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돌아와 유격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당시 동맹 지부의 성원은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동성농장 남쪽 30리 떨어져 있는 남성농장을 비롯한 부근의 일부 지방에도 동맹의 분맹 '분지부'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한다.<sup>88)</sup>

또 이상조는 김용진·현정민 등과 손을 잡고 수화·주하·유수 등 현의 일부 지구에서 맹원들을 발전시켜 동맹조직들을 건립하였다. 이상조가 파견하여 하동에 온 김용진은 1945년 7월 22일 유일수·김중학·허광배 세사람과 비밀회의를 열고 朝鮮獨立同盟 하동지부를 건립하였다. 그때 길림성 유수현 청산포 농장에는 조선족 300여 세대가 8개 屯에서 살고 있었다. 현정민은 그곳에 가 일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청산포 지부를 조직하였다.<sup>89)</sup>

이상의 독립동맹의 滿洲지역 공작활동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작의 방향은 冀東과 北滿 하얼빈을 연결하는 철도연변 도시에 공작거점을 확보하고, 이어 조선인 집단거주지 북간도·서간도로 지향하였으며, 제 12지부 공작원을 국내로 파견한데서 알 수 있듯이 滿洲를 대조선국내 공작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공작운동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조선인 집거지인 서·북간도지역으로 진출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冀東 滿洲 연락선 개통도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獨立同盟의 활동은 이후 滿洲지역에서 朝鮮義勇軍·獨立同盟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하얼빈과 인근 농촌에서의 발전된 동맹의 역량은 해방직후 東北朝鮮義勇軍 제 3지대의 토대가 되었으며<sup>90)</sup> 금주 일대의 역량 역시 해방직후의 조선의용군 선건대 혹은 제1지대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sup>91)</sup>

87) 위의 글 pp.48~51.

88) 위의 글 p.47.

89) 조경형·서명훈, <독립동맹 북만특별위원회> (《승리》, 민족출판사, 1992) p.128.

90) 서명훈,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탄생과 활동> (《조선의용군3지대》) pp.1~36 참조.

91) 최해암, 앞의 책 pp.17~24.

## 2. 朝鮮

태평양전쟁 발발이후 일제는 국내 조선인들에게 각종 전쟁 물자와 식량 등을 공출이라는 명목하에 약탈하였으며 징용·징병제도를 실시하여 남자들을 전쟁터로 끌고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삼았다.<sup>92)</sup> 특히 일제는 1945년에는 25만의 조선인을 징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이 조선 전체가 거대한 인적·물적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 국내 지하공작을 통해 이를 방해하고 조직을 건립해내는 일은 항일전쟁 승리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국내공작을 위한 조건은 매우 좋지 않았다. 1944년 하반기부터 일제는 허가증 없이는 기차를 탈 수 없도록 하였고 1945년 들어서서는 50리 밖의 지역에 갈 때도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 엄혹한 통제를 가했다.

조선국내의 적후공작은 1944년 6월 독립동맹의 결정에서 보듯이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조선국내의 혁명조직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 직접 공작거점 분맹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분맹을 건립하기 위한 공작방침은 1944년 9월에 가서야 구체화되었다. 동맹은 먼저 도시에 들어가 조직을 형성하고 그 바탕위에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조직의 형식은 분맹·소조 같은 일정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기로 하며 각종 합법조직 및 어용조직을 가능한한 모두 이용할 것을 결정하였다.<sup>93)</sup> 이때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국내가 중국의 만주나 관내와 다른 어려운 조건하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건립되는 조직은 ‘독립동맹’의 명칭을 쓰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독립동맹의 직접지시가 아닌 간접적 영향을 받는 조직도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조선국내 공작의 중심은 조선의 북방(함경도) 및 서방(평안도)으로 정하고 공작의 본부는 서울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먼저 서울—회령 사이의 철도 즉 경원선·함경선·길회선을 통과하는 도시에 거점을 설립하고 그 다음으로 서남방향의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서방의 공작은 우선 경의 철로선 및 그 부근의 도시에 거점을 설립하고 이후에 경의선 동북방면의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92) 이 약탈상에 대해서는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下(靑木書店, 1973)에 상세하다.

93) 楊昭全, 앞의 책 p.1148.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아래처럼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역사적·지형적 제조건과 獨立同盟 내부 조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 ① 西北(北韓-인용자)지구는 산이 많고 寒冷하며, 농업생산량은 적고, 주민은 매우 가난하다.
- ② 광산이 많고 허다한 농민이 비옥한 땅을 일제에게 강점당한 후 실업자가 되어 굶어 죽어 광산 도시 혹은 만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 ③ 이 지구의 인민은 정치상으로 봉건시대부터 차별대우를 받아 혁명성향과 투쟁성은 강하고 민족적 각오는 높아 장래 우리들이 기댈 중심지구이다.
- ④ 중국 및 소련과 붙어 있어(인민들은-인용자) 중국·소련의 혁명상황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갖고 있다.
- ⑤ 현재 우리 맹원의 다수가 이 지방에서 생생한 사람으로 이 지방과 각종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94)</sup>

국내공작은 1944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武亭은 1944년 6월에 국내 모 인사에게 공작원을 파견하였다. 위의 모 인사는 武亭에 의하면 1920년대 후반 재상해 중국공산당 조선인지부의 서기를 지냈으며 1930년 상해에서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을 거쳐 조선감옥으로가 7년간 옥살이하고 만기 석방후, 당시 서울 인근 어느 작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sup>95)</sup> 이 사람은 呂運亨이었다. 呂運亨은 일제 패망을 대비해 건국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1943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1944년 8월에는 조선건국동맹을 지하에서 결성하였다.<sup>96)</sup> 獨立同盟 지하공작원과의 접촉이 건국동맹 결성에 어떤 자극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武亭은 1944년 9월 재차 공작원을 呂運亨에게 파견하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편지를 그에게 전하였다. 이 편지에서 武亭은 세계정세와 중국공산당 및 獨立同盟의 발전상황 그리고 獨立同盟의 조선내의 공작의 방향 대상 방법, 금후의 통신연락 등을 밝혔다.<sup>97)</sup> 보고문의 국내분맹공작항에서 무정은 같은 시점인 1944년 9월, 선만 공작위원회의 2명의 공작원에게 분맹을 조직하고 일제의 조선청년 징병을 방해하는 일을 하라는 임무를 주어 국내에 파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98)</sup>

국내공작활동은 성과가 있었다. 1945년 1월에 呂運亨은 獨立同盟에 1명의 대표를 친진

94) 위의 책 pp.1148~1149.

95) 위의 책 p.1146.

96) 李萬珪, 《呂運亨先生鬪爭史》(民主文化社, 1946) p.169.

97) 楊昭全, 앞의 책 p.1146~1147.

98) 위의 책 p.1148.



으로 파견하여 獨立同盟의 의견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뜻과 금후 독립동맹의 의견에 일정하게 준해서 실천할 것이며 이미 지하공작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건국동맹이 독립동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있었지만 독립동맹의 주요 방침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天津의 建國同盟 대표와 獨立同盟 지하공작원은 상호 연계를 취하여 매월 한 두차례 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을 통해 獨立同盟은 국내의 정세를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獨立同盟은 天津의 建國同盟 대표에게 압록강방향 및 두만강방면에서 조직 발전을 위탁하였다고 한다.<sup>99)</sup>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동맹의 분맹조직공작과 국내 혁명조직과의 연계공작은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연계공작은 분맹조직공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4년 9월 분맹건립과 징병방해를 목적으로 파견한 2명의 공작원 중 1명은 같은 시기 여운형에게 파견한 공작원과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무정은 보고문에서 서울에 독립동맹 분맹이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서울의 분맹은 곧 건국동맹일 가능성이 높다. 독립동맹은 앞서 밝힌대로 국내의 조직은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운형 등 建國同盟원들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동맹은 建國同盟을 지부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1945년 5월 중국공산당 7차대회에서 독립동맹을 대표하여 발언한 박일우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혁명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혁명, 조선혁명에도 책임있다고 하였고 조선혁명은 모택동노선에 따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코민테른이 해산되고 소련이 극동지방에서 발을 빼는 속에서 중공을 동북아시아 혁명의 주동자로 보았던 것이다. 독립동맹은 따라서 조선혁명의 중심세력은 중국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은 분명하며 건국동맹을 하나의 독자적인 혁명 단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부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운형이 중국공산당 한인지부의 서기 직까지 지낸 사람이고 보면 적절한 시기에 建國同盟은 독립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武亭은 자신이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던 3인의 옛동지들에게 공작원을 파견하였다. 한 사람은 당시 중학교 교장이며, 2명은 교사로 3개 학교에 나뉘어 있었다. 공작원은 당시의 정세변화와 독립동맹 의용군활동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만약 징병나가면 태평양에서는 미군에 투항하고, 시베리아에서는 소련 붉은군대에 투항하며, 중국에서는 八路軍 新四軍에 가 의용군에 투항하라고 교육해 줄

---

99) 위의 책 p.1147.

것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학교 졸업생들로 힘있는 민족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獨立同盟측의 의견을 접수할 것을 표시하고 금후 獨立同盟과 견결히 합작하여 민족독립을 위해 분투하겠다고 답변하였다.<sup>100)</sup>

獨立同盟은 국내 경성 콤그룹과도 선이 닿았다. 경성 콤그룹 성원들은 일제 말기에 지하조직 공산주의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金台俊·박진홍은 1944년 11월 공산주의자협의회 내의 군사문제토론회의 명령으로 武亭을 만나 국내 군사대책을 세워보기 위해 연안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 사람은 신의주와 심양 그리고 고 산해관을 통과해 무사히 관내에 들어갔다. 이들은 북평에서 석가장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望都역에서 내렸다. 이들은 독립동맹원으로 1944년 천진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沈雲이 가르쳐 준 방법을 이용해 晋察冀 근거지로 들어가 마침내 1945년 4월 5일 연안에 도착하였다.<sup>101)</sup> 이 두 사람을 통해 독립동맹은 콤그룹과 기타 국내의 민족운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sup>102)</sup>

이상의 국내 공작에서 우리는 다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 獨立同盟의 국내공작은 북한도에서 서울로 통하는 철도연변 제도시에 거점을 확보하고 이어 경의선철도 연변 제도시에 거점을 건립하는 순서로 짜여져 있었다. 또 북한지방의 도시와 농촌에 거점을 마련하고 차후에 남한지방을 공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 獨立同盟의 국내 거점건립운동은 과거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서부터 추진되었다. 그 첫 대상은 과거 무정과 함께 중국공산당 상해 한인지부에서 활동하였던 여운형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였던 교사들이었다.

셋째, 독립동맹의 국내공작원의 활동이 여운형에게 큰 자극을 주어 건국동맹의 건립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동맹의 국내거점은 중국관내나 만주와 달리 다양한 형식을 띠도록 되어 있었고, 이 차원에서 독립동맹은 서울의 건국동맹을 독립동맹 서울분맹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00) 위와 같음.

101) 정병준, <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韓國史研究》 80) p.129; 金台俊, <延安行> (《文學》 1~3, 1946~1947).

102) 경성 콤그룹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무정의 보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단지 보고문에는 ‘국내에서 조선민족해방연맹이 결성되어 독립동맹과 접촉을 위해 대표자들을 우리에게 파견해 놓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아직 접촉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楊昭全, 앞의 책 p.1147). 이 조선민족해방연맹이 공산주의자협의회로 짐작된다.

## VI. 맺 음 말

독립동맹은 적후방 거점건립운동을 1944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그해 6월부터 전면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 독립동맹은 화북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만주·조선 국내에 많은 분맹과 거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45년 5월 당시 八路軍 근거지인 山東軍區, 新西軍, 冀魯豫軍區, 太行軍區, 太岳軍區, 晋察冀軍區, 冀東軍區, 晋西北軍區, 延安과 그리고 太行軍政學校 등에 10여 개 독립동맹 분맹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점령지구인 천진·북평·하얼빈·서울에 역시 분맹이 결성되어 분맹의 수는 모두 14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開封·徐州·濟南·民權·承德·臨分·榆次·霍縣·太原·石家莊·順德·新鄉 등의 도시와 冀東 각 농장에 3~5명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거점이 결성되어 있었다.<sup>103)</sup>

이상의 거점건립공작을 통해 독립동맹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적구 공작의 지역별 개관과 적구공작운동의 성격, 그것이 해방후에 끼친 영향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八路軍의 영향이 강한 화북의 도시·농촌지역에서는 조선인들이 매우 중요하고 있었으며 獨立同盟 義勇軍의 영향력은 비교적 쉽게 확대되었다. 독립동맹은 이곳에 거점을 결성하고 많은 인원을 의용군 독립동맹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둘째, 滿洲 경우, 공작선은 철도를 따라 冀東 하얼빈을 잇는 철도연변도시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어서 북·서간도로 발전시키는 순서를 취하였다. 이상조는 태항산의 공작반과 연계하여 하얼빈 동북쪽 농촌지대에서 독립동맹 지부를 결성하고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冀東과 혹은 국내와 연락망 확보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셋째, 조선 국내경우, 적구공작 책임자 무정은 1920년대 후반 상해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여운형에게 공작원을 파견하여 협조를 구했고 공작원으로부터 자극받은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다양한 형식의 조직건설을 공작방침으로 정하고 있었던 독립동맹은 이 건국동맹을 독립동맹의 서울지부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넷째, 북평분맹책 김명시, 天津분맹책 안병진, 국내의 呂運亨 등이 모두 무정과 친분이 있는 이르크츠크파·화요파라는 점에서 보듯이 독립동맹의 거점건립운동은 파벌적 경향을 어느정도 띠고 있었다.

---

103) 楊昭全, 앞의 책 p.1150.

마지막으로 거점건립공작을 통해 獨立同盟은 해방후 만주로 뺏어 나갈 기초를 마련하였다. 冀東지방의 공작은 해방후 朝鮮義勇軍 先遣縱隊, 東北朝鮮義勇軍 1지대의 바탕이 되었으며, 하얼빈 인근의 활동은 3지대 결성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해방후 서울에서 건립된 獨立同盟 京城委員會(후에 南朝鮮新民黨)의 경우 그 전모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沈雲이 그 조직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일제 말기 서울에서의 지하공작이 경성위원회 결성에 기여했으리라고 보여진다.